

#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것이 주는 유익

김헌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에 승천일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 나라는 승천일이 공휴일이어서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야외로 소풍을 나갔다. 오전에 교회에서 승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야외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유익에 대하여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던 일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게 지내고 수난일과 부활절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오순절은 거의 기념하지 않고 지냈는데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에서는 승천일과 오순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신 강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있다. 구속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성탄절’보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교리가 그분의 탄생이나 죽으심, 부활과 오순절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종종 십자가와 부활만을 강조하고 승천은 언급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2천 년 전의 일로 끌고 가기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오늘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경시하기가 쉽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령한 성격을 더 바르게 깨닫고 나갈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주일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리스도의 종보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유익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보자로서, 곧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행하신 사역과 관련하여 승천의 사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을 생각해 보겠다.

## 1.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행 1:9-12).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일이 있었는데, 하늘에 오르신 것은 물 위를 걸으신 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모습을 보이신 사건이었고, 따라서 그분이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요 16:28).

1) ‘구름에’와 ‘구름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한 본문을 읽을 때에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시다 구름이 있는 높은 곳에 다다르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에서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고 말한다. ‘구름에’와 ‘구름이’의 차이인데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다. ‘구름에’라고 생각하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것이 그저 자연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러나 ‘구름이’라고 하면 구름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말이다. 속죄의 일을 마치신 예수님을 하늘로 인도한 그 구름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구름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영광의 구름’(쉐키나)이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에 여호와와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출 40:34-35), 구속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영광의 구름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24의 표현대로 ‘참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림 1>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작자 미상)

2) 복을 주시면서 승천하심 -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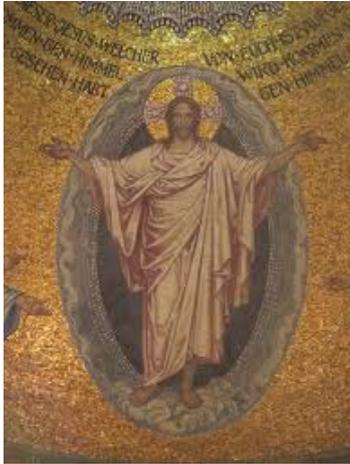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그 장면을 서술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갈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보면서 간다. 예수님의 승천도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분의 등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중세의 화가 지오토가 그러한 식으로 그렸다(<그림 2> 참조).



<그림 2> “그리스도의 승천”  
Giotto 작 (1304년 경)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눅 24:50-51)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것이다. 승천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승천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승천하시면서 복을 주신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면 백성은 그 복을 받고 돌아갔다(민 6:24-26).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다는 확증을 얻으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참하늘에 들어가시면서 복을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드린 희생제사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림 3〉 감람산 ‘예수 승천 교회’의 천장에 있는 모자이크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들어 복을 ‘주실 때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즉 그분은 제자들에게 등을 보이면서 하늘을 향하여 빨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로 가셨다.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세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이다. 이 광경은 제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이후로도 계속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짐을 각인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 3) 구름을 타고서 승천하심 - 왕으로서의 사역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관련하여 묘사하였다(시 18:10; 68:33; 104:3; 사 19:1 등).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또한 “가심을 본 그대로”, 즉 구름을 타고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특히 다니엘서 7:13-14에서 예언한 인자(人子)의 모습이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

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름을 타신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주신 것이다(마 28:18). 승천하신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 4)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심 - 선지자로서의 사역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엡 4:7-10).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선물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언급되고 있다(엡 4:11).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해방시켜 주셨고(히 2:14-15), 그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특히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만나셔서 그를 포로로 삼으시고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들을 주시고, 또한 성신으로 함께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효과 있게 적용시키신다(마 28:20; 눅 24:47). 이 점에서, 선물을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분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 2. 승천이 주는 유익 (49문)

49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 가르친다.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요 16:7)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분의 백성에게 더 유익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늘로 가시는 것이 그 백성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 1)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代言者)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림 4〉 “그리스도의 승천”  
John Singleton Copley 작 (1775)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그의 속죄의 공효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요일 2:1; 롬 8:34).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일을 ‘참 하늘에 들어가신 것’으로 표현하고(히 9:24), 거기서 항상 살아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가르친다(7:25). 높아지신 지위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효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가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도 십자가와 부활 못지않게 구속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肢體)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신인(神人)으로서 하늘에 계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그대로 지니신 신인으로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이미 하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 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에 대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6)라고 가르친다. 이 땅에 사는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  
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대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골 3:3-4)

또한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도 말한다(빌 3:20). 그 외에, 신자들이 이룬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26)이라고 가르친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계시므로, 그분께 붙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신다는 것이 기정사실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구약 율법에서 첫 열매를 받으실 때에 그 첫 열매로써 밭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곡식도 받으셨듯이,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 3) 성신이 그 보증이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짜이 되는 또 하나의 보증'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 주셨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몸'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이 서로 짝을 이루는 보증인 것이다. 마치 약혼한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듯이 '보증'과 '짜이 되는 보증'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장차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신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심으로써,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롬 8:11 이하).

그리스도에게서 오신 성신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곳, 즉 위에 있는 것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다(골 3:1-3).

### 3. 요약 - 지금 천상의 삶을 살아감

나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만든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자신이 자신의 전부가 결코 아니다. 신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자신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있으며, 또한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무를 바르게 깨닫고 나아오기를 촉구한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교리적인 진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한다. 이 소망은 '산 소망'으로서, 우리의 생활을 이끄는 동력이다. 그러나 말이나 옷이나 사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것 등에서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실천적인 면에서 승천을 부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